

교통약자로서의 저소득 계층: 빈곤 연구의 정책적 함의

발표자: 엄주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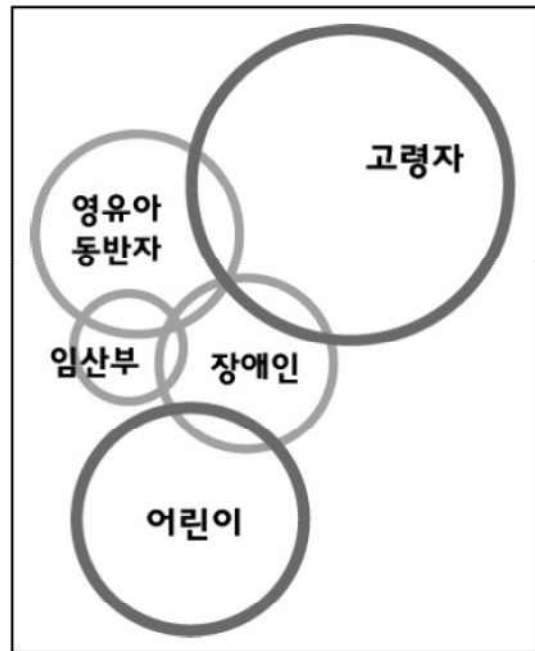
빈곤포럼

발표장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일시: 2012년 6월 12일

교통약자의 정의

수로 본 교통약자



- **협의:** 이동에 제약을 받는 신체적 교통약자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 **광의:**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의미의 교통 약자를 모두 포함
(저소득층, 교통시설이 없는 소외지역 거주자 등)
- 국내 연구는 신체적 교통약자 중심으로 이루어 짐
- 본 발표에서는 경제적 의미의 교통약자를 조명함

도표 인용출처 : 이신해 (2009). 교통약자 만족도 분석을 통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10(1), 197-208.

이동(권)/기동력/접근성 / 교통 / 교통형평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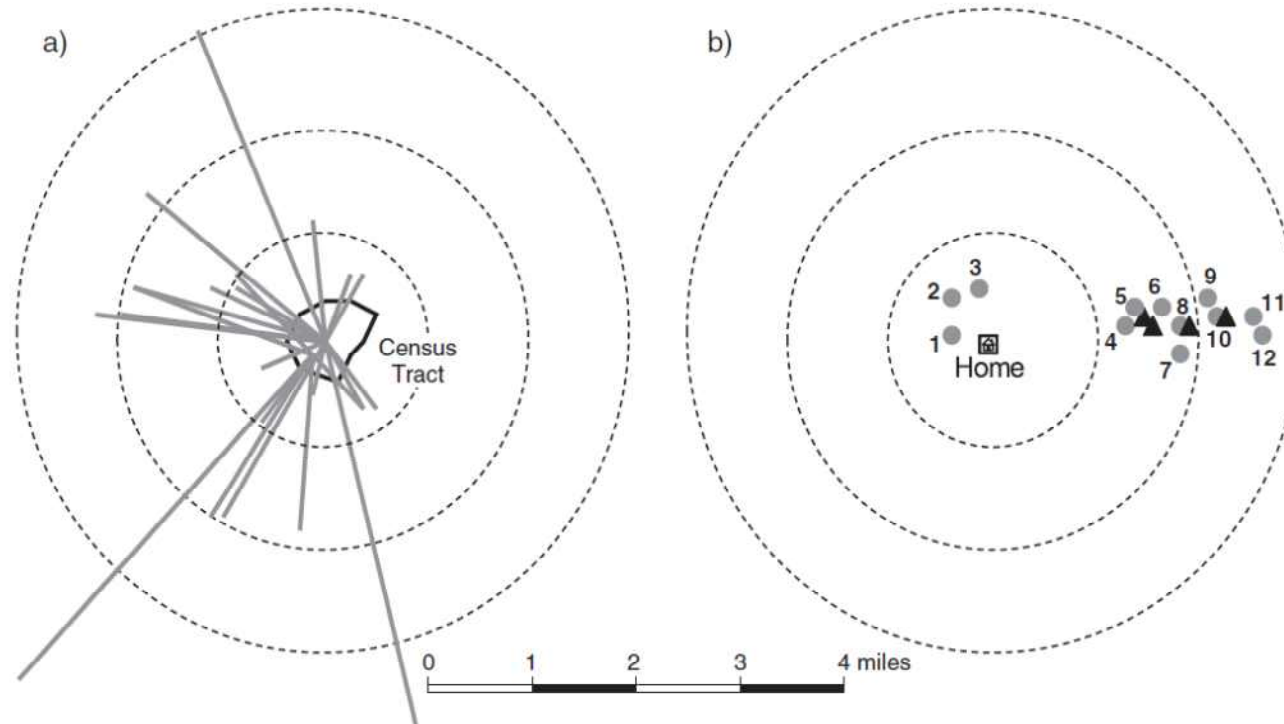
- 교통은 사회, 경제적 활동을 하기 위해 다양한 시설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권리 (김아연, & 전병운, 2012)
-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재화, 서비스, 활동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이동권을 갖지 못하면, 교육, 노동 등 개인의 삶 전반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임 (윤상용, 2004; 마경희 외, 2011)
- 기동력과 삶의 질: 기동력이 없으면, 사회적 활동이 줄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 (Riter, Straight, & Evans, 2002).

교통 접근성과 빈곤층의 구직활동

- 빈곤층이 구직활동을 하는 데 있어 교통제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이 연구됨
- 미국 일리노이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을 받은 경험자들 (former welfare recipients) 중 40%가 구직시 어려움으로 교통문제를 꼽음
- 미국 감사원 보고서에서는 미국 내 대중교통 서비스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기동력 확보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출처 : Brenman, Ma, Stolz. (2007). *The Right to Transportation: Moving to Equity*. Planners Press. Chicago.

빈곤 가정의 이동 패턴 연구



a) 빈곤 가정이 센서스 트랙 밖으로 이동하는 패턴을 보여줌

b) 빈곤 가정이 이용한 사회서비스의 지역적 분포 (병원, 공원, 보육원, 무료급식소, 가정폭력 쉼터 포함)

인용출처 : Matthews et al. (2005). Geo-ethnography: coupling geographic information analysis techniques with ethnographics methods in urban research. *Cartographica* (40(4)). pp.75-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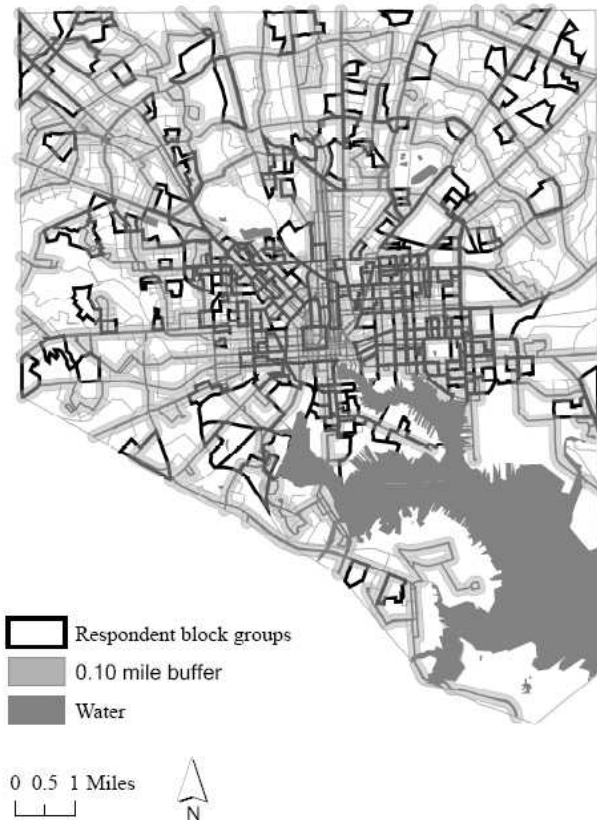
노인의 기동력과 소득의 관계

- 기동력이 약화되는 경우는?
(기동력을 외출 횟수, 외출 거리로 정의함)
 - 소득 수준이 낮아질수록 외출횟수가 적음
 - 소득 수준이 낮아질수록 외출 거리가 짧음
-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에 사는 노인 (n=58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소득 수준과 대중교통 이용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출처 :Yum, J. (2007). Factors associated with elderly mobility: examination of immigrant status and access to public transi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Baltimore.

지리정보시스템 (GIS) 을 이용한 근접도 조사

0.10 Mile Buffer Analysis from Transit Services



- 대상: 볼티모어시 전역의 센서스 블록그룹
- 응답자가 속한 센서스 블록 그룹: 검고 굵은 테두리에 하얀바탕
- 방법: 대중교통 서비스로부터 반경 0.10 마일에 해당하는 버퍼를 만들었음 (연한 회색)

대중교통 접근도 계산법

A Block Group with 25% Transit Coverage



- 접근도 비율 : 각 센서스 블록 그룹의 면적 중 몇 퍼센트가 0.10 마일 버퍼와 접하고 있는지 계산

저소득 계층의 이동 패턴 연구

- 빈곤 계층의 이동 특성으로는
 - 이동 횟수가 적고,
 - 이동시간은 길며,
 - 이동 거리는 더 짧고,
 - 비빈곤층보다 대안적인 교통서비스를 많이 이용함

출처 : Clifton, K. (2003). Examining travel choices of low-income populations: issues, methods, and new approaches. Conference paper from 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ravel Behaviour Research.

대중교통 접근성: 환경적 형평성 분석

- 대구시 전 지역에 대중교통서비스가 형평성있게 분포되어 있는가?
- 고령자비율과 기초생활수급자비율에 대해서 환경적 불형평성이 나타남
- 영구임대아파트/쪽방촌 지역을 제외한 노후화된 불량 주거지 밀집지역에서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출처: 김아연 & 전병운. (2012). 대구시 대중교통서비스의 접근성에 대한 환경적 형평성 분석. *한국지리정보학회지*. 15(1), 76-86.

서울시 노인들의 통행 특성

- 노인의 통행 특성은 일반인과 매우 다름
- 도보통행이 가장 많고 개인교통수단 이용률은 낮음
- 통행비용이 저렴한 교통수단을 주로 이용

-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의 영향
 - 무료이기 때문에 교통수단을 선택함 (지하철) => 이에 따라 목적지를 선택함 (종묘공원)
 - 지하철 이용 이유는 무료요금제도 때문이라고 응답

출처: 노시학 & 양은정. (2011). 서울시 이동가능 고령인구의 주요 통행패턴과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에 대한 인식. *국토지리학회지* 45(4), 545-557.

수도권의 교통 형평성 분석

- 국내 교통시설 투자는 절대적 양이 부족한 곳에 투입되기 보다 여건이 양호한 지역의 과수요에 대응하여 공급됨
- 부적절한 교통서비스의 분배 =>
특정 계층에게 교통수단의 접근이 어려움
- 대중교통시설의 소득수준별 공간적 형평성의 격차는 소득이 낮은 지역 거주민들의 총통행시간의 증가를 가져옴

출처: 이원도 외.(2012). 수도권 가구통행 조사를 바탕으로 한 교통 형평성 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5(1), 75-86.

계층별 소득수준을 고려한 교통복지 방안

- 사회적 배제: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에 참여하는 길이 다른 일반인에 비해 막혀있는 상황을 의미함. 특정 개인이 사회적 차별, 저숙련, 저소득 등으로 인해 사회생활의 가장 기본적 활동을 영위하지 못하는 현상
- 저렴한 주택을 찾아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으로 이사하는 계층은 높은 교통비용을 감수해야 함
- 저소득층에게 교통비는 생필품에 대한 지출의 성격
- 고소득층에게 교통은 추가적 욕구 충족에 사용되고 있음
- 저소득층은 교통수단에 관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교통수단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것이 소득계층 간 형평성 제고에 도움됨

출처: 마강래. (2011). 계층별 소득수준을 고려한 교통복지 향상방안. 국토 354(4), 16-24.

복지패널 연계 질적 분석: 빈곤층의 기동력

- 시골 지역에서 일감을 찾기 어려움. 차량 제공이 가능한 작업장을 찾음.
현재 하는 일: 비정기적으로 곳감 다는 일/ 껍질 치우는 일

“일 한다 캐봐야 노동일... 뭐 신고 발매고 이런기지 뭐 단거 뭐 있어요?
... (몇시에 나가세요? 아침에는?) 6시 50분에 출발...그래 가며는 7시 반에 도착해요...
5시까지 근무해요.” (참가자62)

- 교통서비스 중단으로 유일한 여가생활(노래교실)을 못하게 됨.

“여름철에 버스가 안 다녔잖아요. 못 다녔지... 노래교실 땡겼는데, 버스
파업되는 바람에 손 놔갖고 안나가버렸어... 왜 이렇게 외롭게 사나 싶으고.” (참가자 99)

- 병원비 부담보다 병원에 가는 교통비 부담이 큼

“병원비는 안드는데 인제 걸음을 못걸으니까 전철을 타거나 전철타고
걸어가거나 그걸 못 해그러니까 택시타고 가야지. 그러니까 오고가고 왕복 아무리 못해도
만오천원은 나오지 만오천원...한달에 한번씩 딱 그거 쓰는거야.” (참가자 41)

교통약자로서의 빈곤층

- 정책적 함의
 -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교육, 직업참여, 여가, 의료 시설 이용등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
 - 접근성, 형평성 고려시 이동성을 포함하기.
- 빈곤층 욕구조사시 이동성을 고려
 - 어떻게 오셨습니까?
 - 산발적으로 있는 교통비용지원 서비스의 적합성 재고

해외연구사례: 한부모 어머니들의 취업과 복지

- 기초생활수급을 하는 한부모 가정 어머니들을 질적연구한 조사 (N=379)
- 빈곤 가정의 지출을 질적으로 연구하며 식료품비, 의료비, 주거비, 보육비 등을 질문함. 기타비용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은 교통비
- 아래의 항목에 대한 지출비용을 물어봄
차 할부금, 보험금, 차량등록세, 세금, 차수리, 휘발유, 엔진오일 갈기, 통행료, 택시비, 대중교통비, 다른 사람의 차를 빌리는 값

출처 : Edin, K. & Lein, L. (1997). Making ends meet: how single mothers survive welfare and low-wage work. Russel Sage Foundation, NY.

김은정 & 진미정 번역 (2006). 한부모 어머니들의 취업과 복지-빈곤한 미국 한부모 어머니들의 삶. 신정

해외 정책 사례

Job Access and Reverse Commute Program (JARC):

-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집(도심)과 직장(외각지역) 사이를 이동할 때 접근성을 높이려는 프로그램.
- 빈곤층이 사는 지역과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잠재적 일터와는 공간적으로 불일치함.
- 기존에 있던 서비스를 보완하여 이른 아침이나, 밤 늦게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거나, 주말에도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실행되고 있음

비거주 아버지의 양육 참여:
새로운 배우자/파트너, 가구내 아동의 영향

2012년 06월 12일

정은희

연구배경

- 미혼출산 및 이혼으로 친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는 자녀의 증가
- 대부분이 모자가족
 - 높은 빈곤율
 -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
- 아버지 부재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감소 시키는 방안에 큰 관심
- 기존연구: 이전 가족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참여
 - 경제적인 측면 강조 (예: 소득수준, 교육수준, 실직유무)

연구배경(계속)

- 새로운 파트너 맺기: 결혼(재혼)과 동거
 - 이혼이나 별거후, 대부분 아버지는 새로운 파트너와 재혼/동거를 함
 - 아버지의 가구내에서 생활하는 자녀 유무
 - 새로운 파트너와 가족을 형성한 비거주 아버지의 50% 이상은 가구내에 함께 생활하는 아동이 있음
- > 결혼(재혼)/동거.새로운 부양아동의 효과를 탐색할 필요가 있음

연구문제

- 1) 비거주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아버지의 결혼/동거 여부에 따라 다른가?
 - 결혼, 동거, 데이트 상태인지에 따라서 다른가?

- 2) 비거주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현재 아버지 가구에 거주하는 아동유무에 따라 다른가?
 - 친자(biological relationship)인지, 현재 배우자/파트너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인지, 이전의 배우자/파트너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인지에 따라 다른가?

아버지의 재혼 및 동거

- 결혼
 - 가족구성원에 대한 역할기대가 비결혼 (예, 동거) 보다 분명함
 - 출산과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수준이 비결혼 보다 높음
- 동거
 - 관계에 대한 책임감이 결혼에 비해 약하고 안정적이지 않음
- 결혼/동거(vs. 데이트 관계)
 - 데이트하는 경우에 비해 가족관계에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음
 - 가족구성원간 역할을 발전시키고 협상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음
- 독신
 - 새로운 파트너로 인해 발생하는 역할갈등이 적음

함께 생활하는 아동 유형

- 함께 생활하는 아동의 존재
 - 일상생활에서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증가
 - 기존가족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감과 충돌할 가능성
 -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감이 더 명확해짐
- 친자녀에 대한 법률적, 규범적 양육책임이 의붓자녀에 비해 더 명확함
- 함께 거주하는 현재 배우자/파트너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난 경우, 친자녀에 대한 양육책임과 부모로서의 역할기대가 큼

분석자료

- The Fragile Families and Child Well-being Study:
 - 약 4,900 명의 도시에서 출생한 Birth Cohort
 - 기초선 데이터, 생후 일년, 생후 3년, 생후 5년 서베이

표본

- 미혼출산 가구 ($n=3,712$)
- 어머니와 아동이 함께 살고 있으나 아버지와는 살고 있지 않은 가구
- 1차, 2차, 3차 데이터를 pooling

분석방법

- T-test
- ANOVA Test
- Fixed Effects 모델과 Random Effects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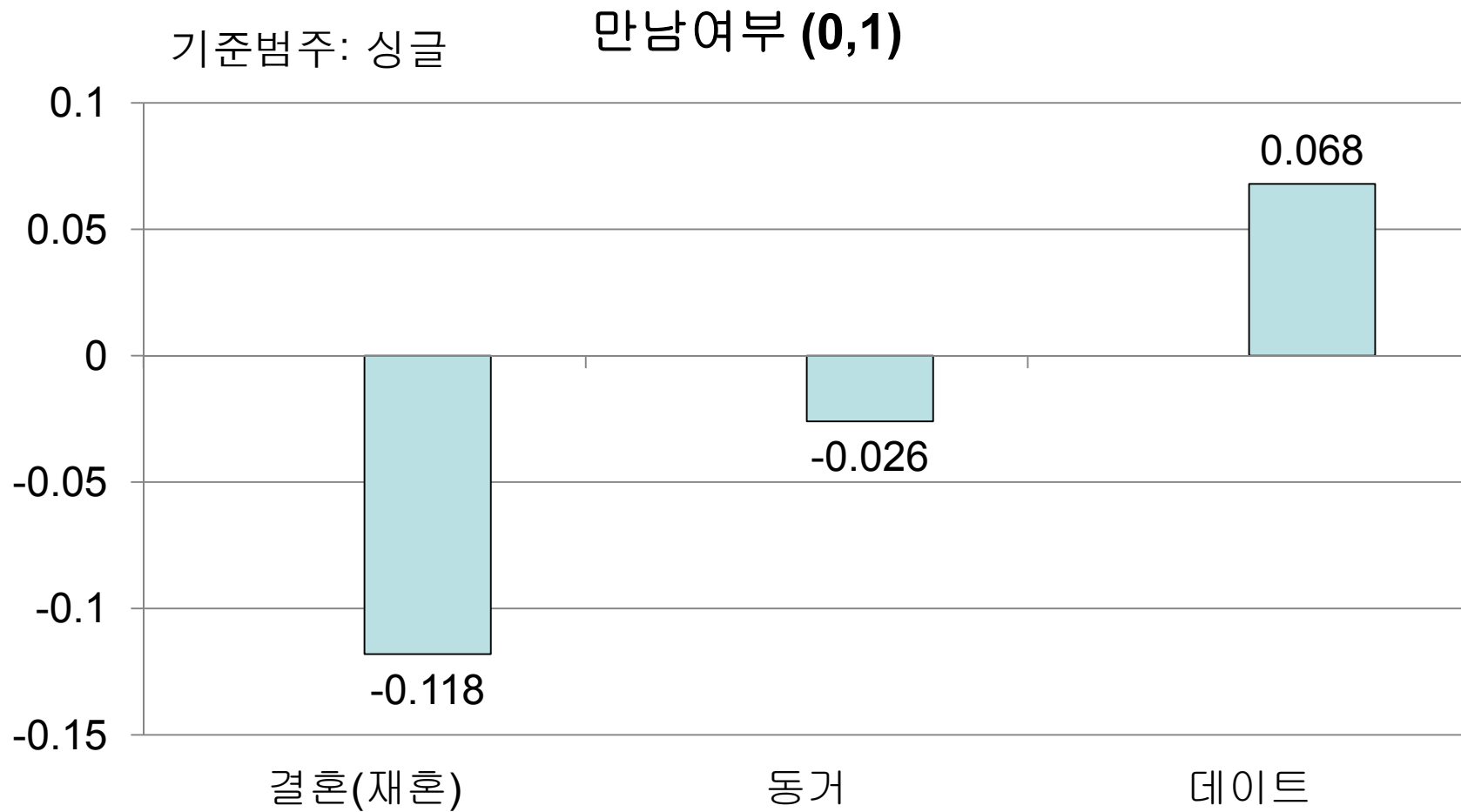
변수 측정

- 종속변수
 - 만남여부
 - 만남빈도
 - 양육참여 수준
- 주요 독립변수
 - 아버지의 혼인상태(결혼, 동거, 데이트 파트너 있음, 싱글)
 - 현재 생활 가구의 아동유형: 1) 의붓자녀, 2)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친자(focal child's siblings), 3) 다른 전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친자(focal child's half-siblings), 4) 현재 파트너 사이에서 태어난 친자(focal child's half-siblings born to current partner), 5) 아동 없음
- 통제변수: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변수 및 아버지의 어머니의 관계 특성변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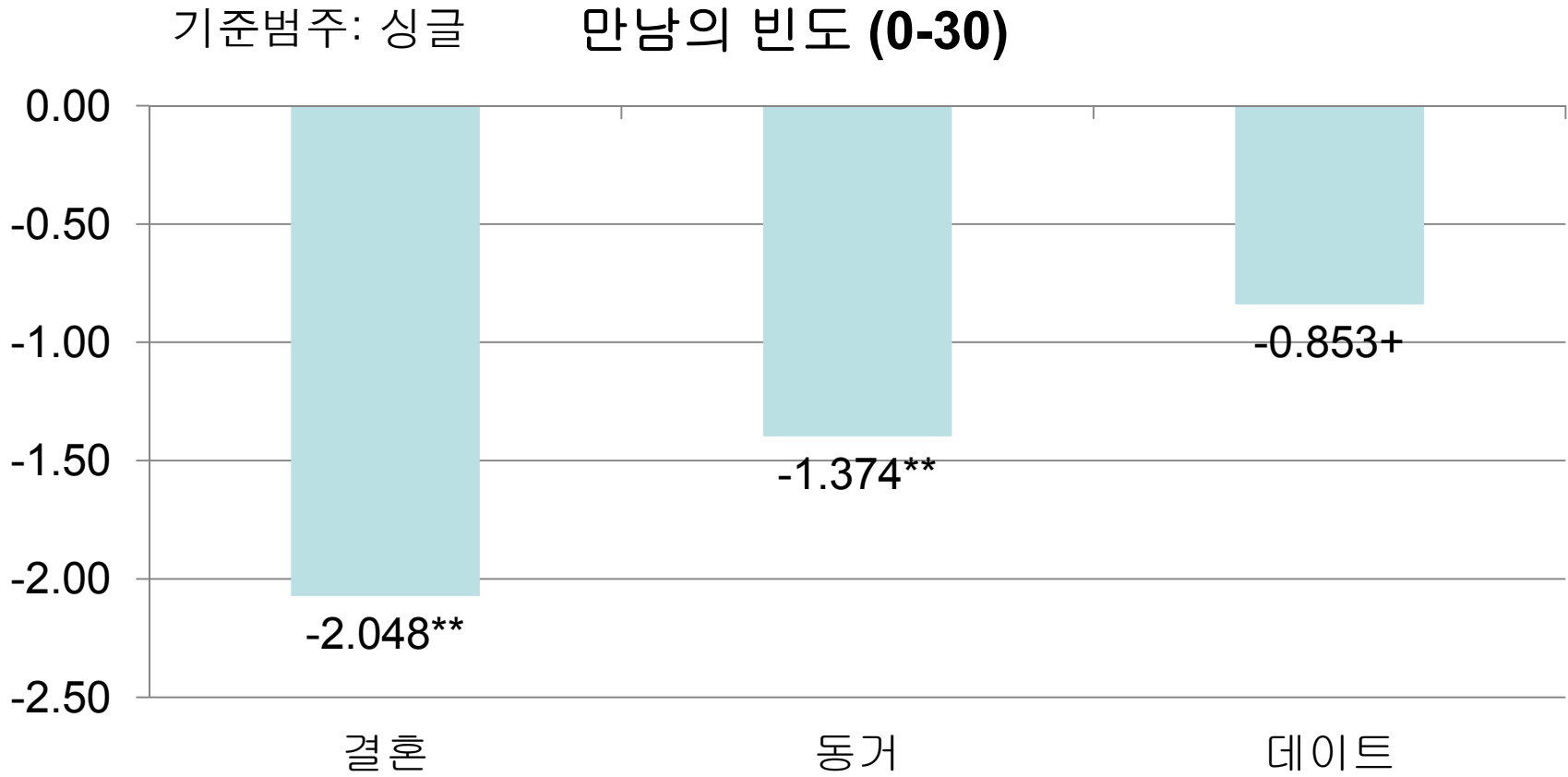
비거주 아버지의 특성

- 미혼 출생시, 평균연령 :26세
- 백인이외 인종: 약 85%
- 고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 78%
- 15살때 양쪽 부모님과 함께 거주: 2/3
- 미국외 국가에서 출생: 약 14%
- 취업: 70%
- 평균 소득: \$26,000
- 아동양육비 지급 :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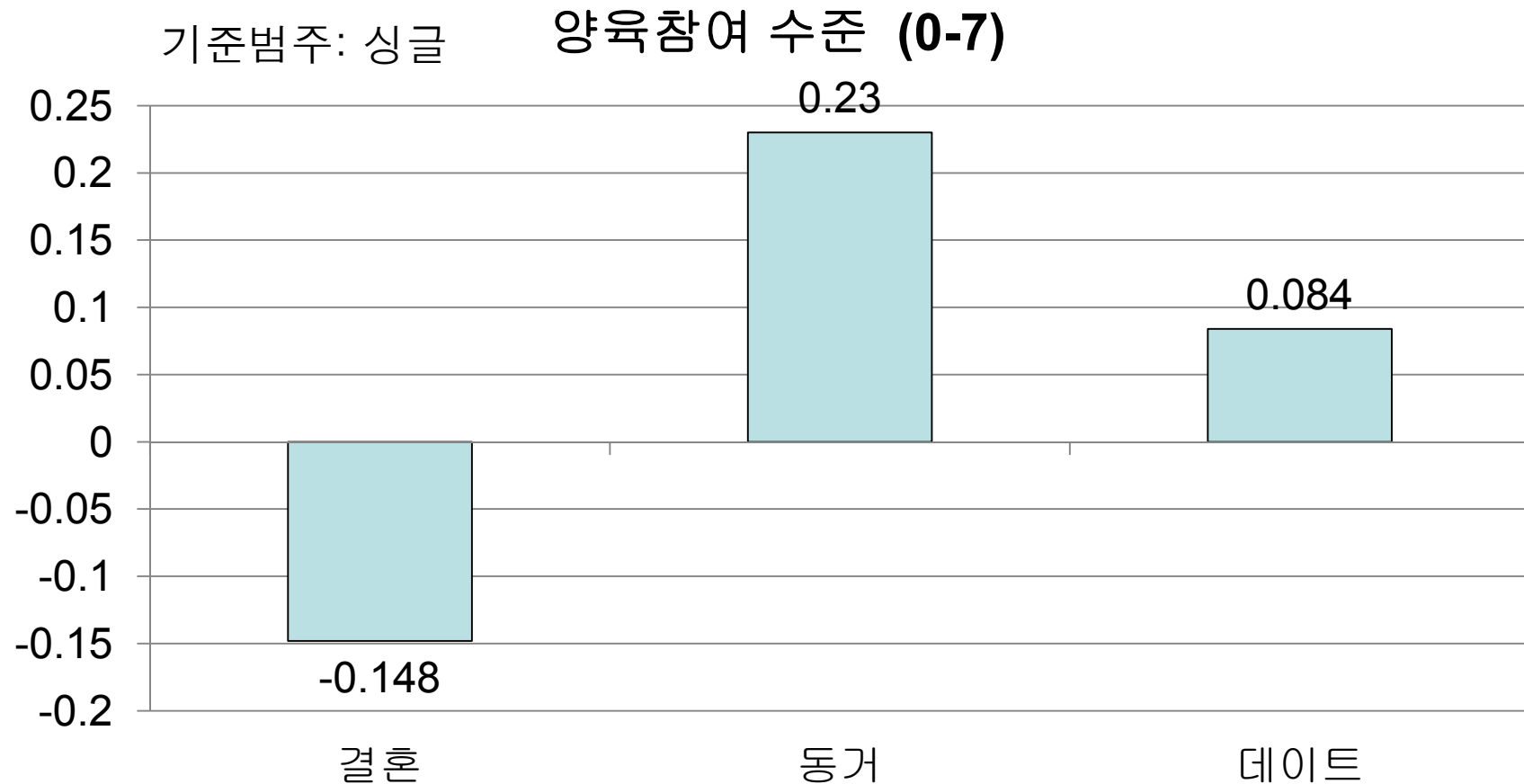
파트너 형태에 따른 만남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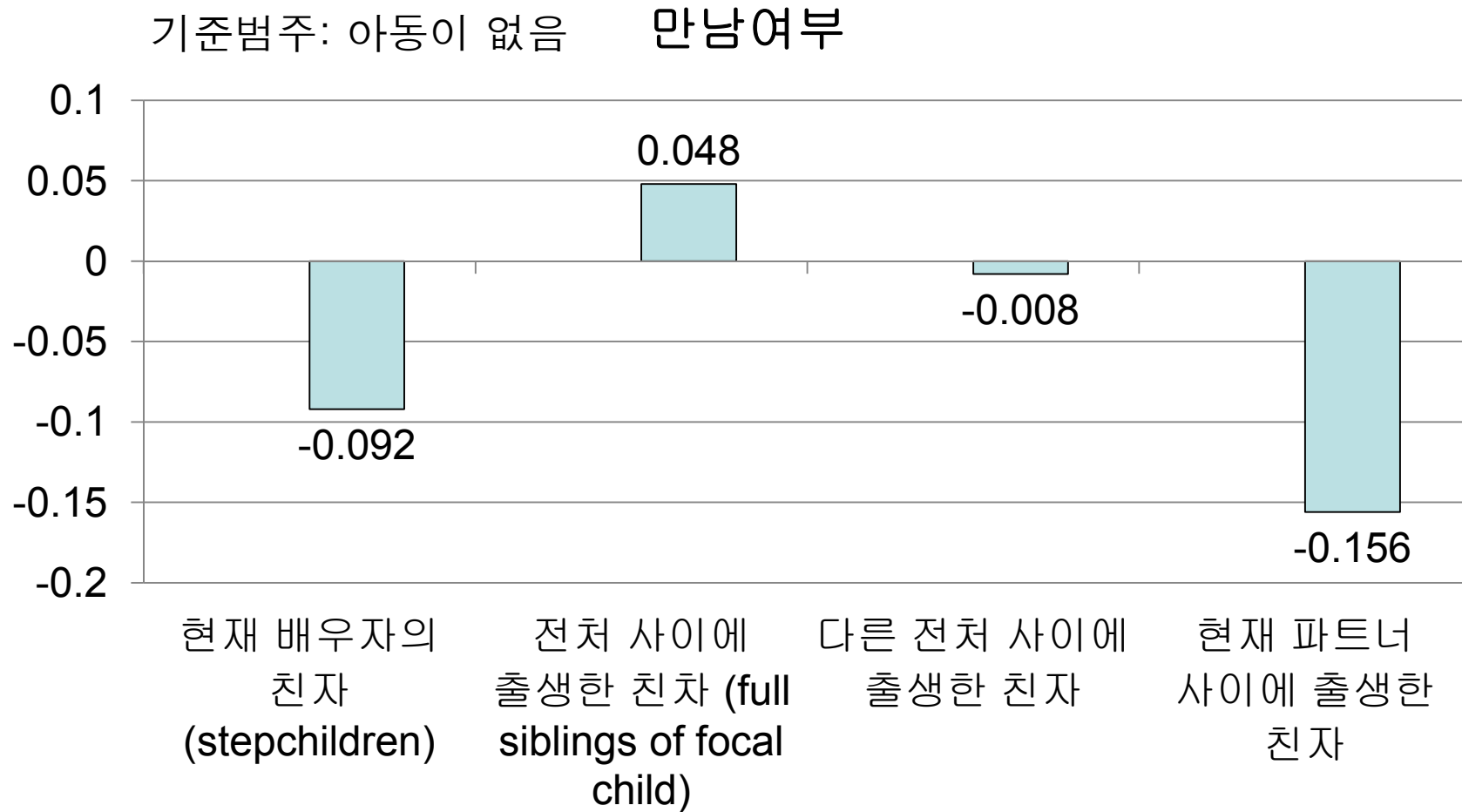
파트너 형태에 따른 만남의 빈도



파트너 형태에 따른 양육참여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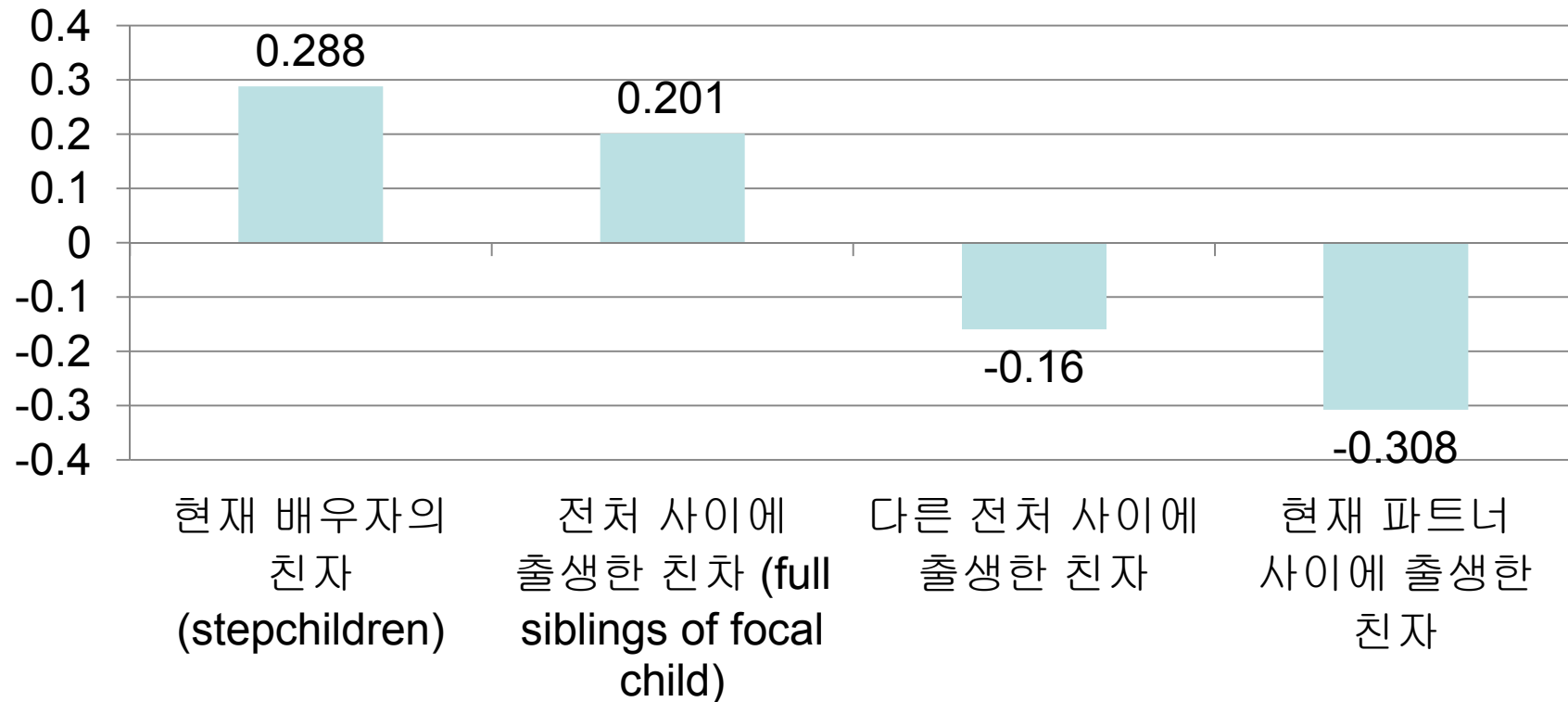


아동의 유형에 따른 만남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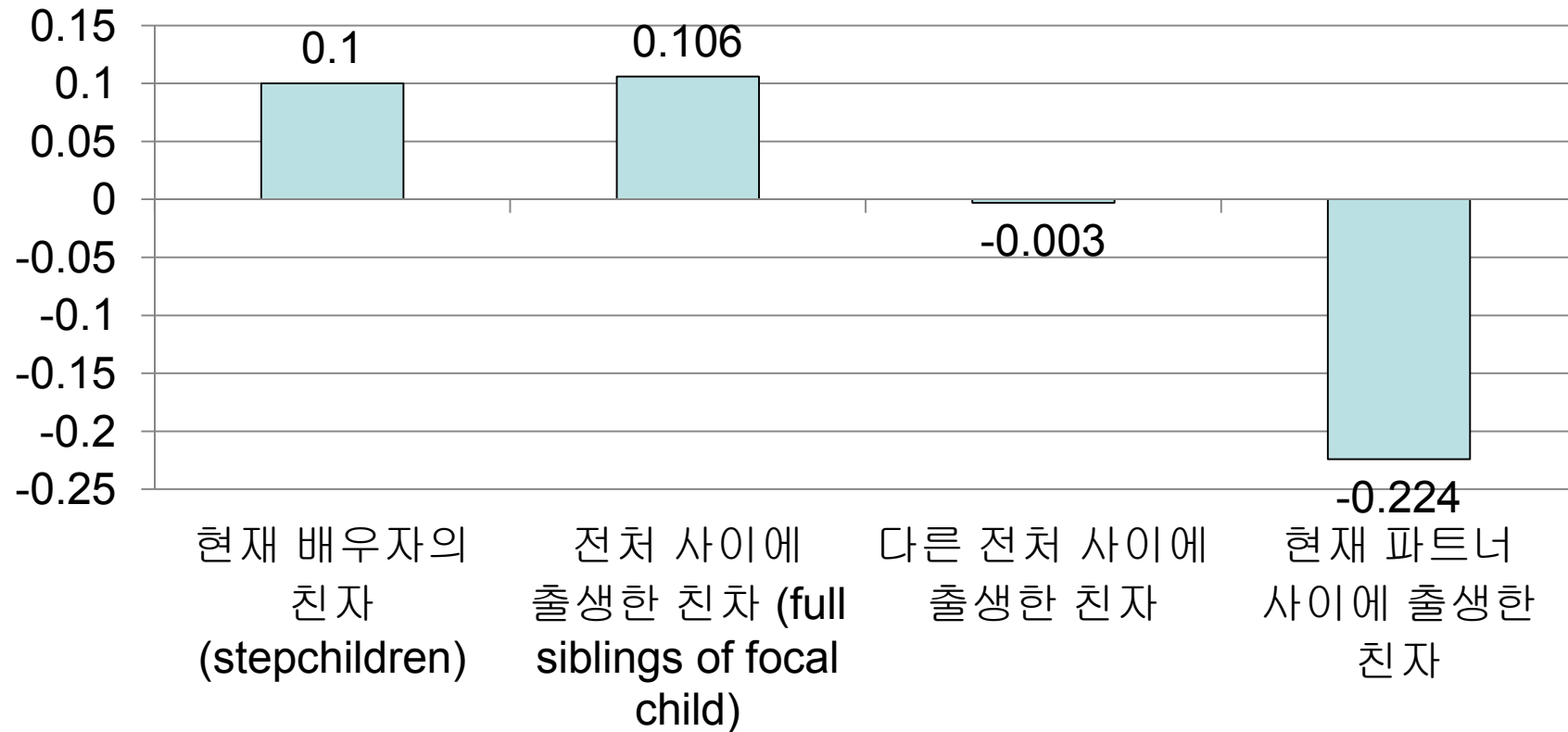
아동의 유형에 따른 만남의 빈도

기준범주: 아동이 없음 만남의 빈도 (0-30)



아동의 유형에 따른 양육수준

기준범주:아동이 없음 양육참여 수준 (0-7)



요약

- 만남여부
 - 아버지의 재혼/동거와 만남여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는 아동과 만남여부 또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만남의 빈도
 - 아버지의 재혼/동거와 만남의 빈도는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파트너 유형에 따라서 만남의 빈도 또한 다르게 나타남
 - 아버지와 거주하는 아동의 존재는 만남의 빈도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양육수준
 - 아버지의 재혼/동거와 양육수준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는 아동과 만남여부 또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연구의 의의

- 아버지의 새로운 배우자/파트너, 가구내 아동의 유형에 초점
 - 비거주 아버지의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확장
- 패널자료 이용
 - 변하지 않는 개인 특성이 아동양육에 미치는 영향 통제
- 아동양육에 미치는 변인의 포괄적인 검토 및 적용

정책적 시사점

- 새 배우자와 가족구성원으로 인해 이전가족에서 태어난 아동양육의 어려움
- 비거주 아버지의 양육책임 강화 프로그램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 조기개입이 필요함
- 새로운 배우자/파트너의 협력적인 역할이 필요함